

# '4월 국회'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

### 여야, 靑 2기 인사 놓고 극한 대립...한국당 전면투쟁 선포 민생·경제 관련법 논의 올스톱...선거제 개편·추경처리 난항

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期) 인사를 놓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주요 쟁점법안과 민생현안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 속에서 시작된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어두웠다.

이런 가운데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불붙으면서 주요 입법과 민생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

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외(場外)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대외 전면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는 경색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협의회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정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골-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 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초 끝난 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기रो에 선 손학규

### 최고위원들 주말 복귀 거부... 안철수계도 사퇴론 동조 이번주 지명직 임명 관심...23~25일 바른미래 의총 분수령

4·3 보궐선거 참패로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 주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뿐 아니라 당의 다른 한 축인 국민의당계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여기에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분출된 당내 갈등은 이번 주중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를 이번 주 '대표적 유지'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전후해 공식적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함으로써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박쪽'이 된 최고위원회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주말까지 복귀하라"는 손 대표에 대한 조처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지난 19일 이수민 의원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도 "거대 양당이 기웃대지 말고 제3의 길을 굳건히 가면 국민은 우리에게 마음을 둘 것"이라고

사퇴론을 일축했다.

다만 손 대표의 카드가 먹혀들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손 대표가 지난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안했으나, 원내 인사 대부분은 손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 혹은 제2 창당위원회의 출범도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장 제의를 받은 정병국 의원이 사실상 거절했을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 못 하면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며 등을 돌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안철수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안철수계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지난 18일 손 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역할론'을 강조했던 만큼 안전 의원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변수들은 적지 않다. 당장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등 호남 신당론을 주장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은 손 대표 퇴진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23~25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 양정철 등판

### 민주연구원장 공식 선임 29일 취임식 없이 업무시작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양 전 비서관을 새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중순께 양 전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했고, 양 전 비서관은 지난달 초 고심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비서관은 다음달 14일 취임식 없이 새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의 당 복귀에 앞서 민주연구원은 이미 총선 지원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싱크탱크로서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분가'해 있던 사무실을 이달 초 여의도 당사 안으로 이전, 당 지도부와 의 긴밀한 협력을 대비했다.

양 전 비서관은 민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다소 축소하고, 총선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기존 연구원 멤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 전 비서관의 구상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감대에 따라 조만간 연구원 안팎의 인력 배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철희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연구원에서 인재 영입, 총선 전략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 한국당, 국회 밖으로

### 정부 인사·외교·경제 비난...내달 전국 돌며 정권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은 20일 광화문 장외집회에 이어 21일에도 대외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전날 대규모로 치러진 장외집회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 대외투쟁의 전선을 확장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장외집회에 대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합께한 피 끓는 외침"이었다며 "국민의 외침은 단순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과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외교·안보 정책, 경제정책 등을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장외집회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비판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제 발 저린 도둑의 모습이다. 답답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부디 청와대와 민주당은 '색깔 없는' 국민의 걱정을 깊이 새겨들기 바란다"고 역경을 취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다음 달 문재인 정부 2년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태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좌파특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으며, 약 한 달 동안 부산·대구·충청·수도권 등을 돌며 현 정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행한 것들은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후안무치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자행해온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의 실상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 당긴 민주 원내대표 경선

### 이인영 출사표에 김태년·노웅래 조기 출마선언 검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서열탑 경선 레이스가 일찍 '스타트'를 끊었다.

전체 경선의 틀이 모두 3선 의원인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7:1:2)의 3파전 구도로 짜여진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21일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경선까지 2주 남게 남았고, 공식 후보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빠른 행보다.

김태년·노웅래 의원도 이 의원의 '이른 출사표'에 바짝 긴장하며 출마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후보등록 이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하려면 두 의원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 밝히는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 그만큼 세 주자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견고한 일치의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 실세이자 정책통인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실무 경험을 살려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

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지도부가 '친문 실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김 의원은 "할 말은 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원내서열탑 도전이 세 번째인 노웅래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확장력, 야당과의 소통에서 발휘할 유연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노 의원은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아안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중이다.

이 의원은 다소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지만 '선제적' 출마 선언을 통해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이 의원은 '변화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선 공고를 한 뒤 30일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기회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여수시 주상동 - 토지:9,157㎡(2770평) 매매가:50억  
주동사거리 메인코너 위치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경매

- ★ [의료시설]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토지:13239㎡(4004,8평) 건물:2597,31㎡(785,7평) 감평가 42억5천5백만원 최저가(36%)15억2천5백만원
- ★ [의료시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토지:1806,2㎡(546,4평) 건물:2842,87㎡(860평) 감평가 42억6천4백만원 최저가(100%)42억6천4백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대지: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평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평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평가 62억2천2백만원 최저가(56%) 35억1천만원
- ★ [공장용지]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37599㎡(1137,1평) 건물: 2040,5㎡(617,3평) 감평가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70%)10억4천2백만원

“상무지구·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